



2013년 7월

<오챗코>에서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가설주택 주민만이 아니고 주변 분들도 오신다



다양한 연령층이 공예에 집중

## 가설주택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을!

~ 일본기독교단 동북지구 피해자 지원센터 • 에마오 ~  
미야기 • 이시노마키시

「에마오 이시노마키」는 현재, 이시노마키 시내에 있는 4 곳의 가설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가설주택은 10-15 세대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다. 가설주택에서는 집회소가 작기도 하고, 없는 곳도 있어서 이사한 분들의 빈집을 빌려, 「에마오 이시노마키」가 월 2회 「오챗코」를 열고 있습니다.

모인 분들은 교회로부터 받은 수공예품으로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게임을 하면서 노는 아이들까지,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해도 선택의 폭이 적은 가설주택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행복」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마오 이시노마키에 오시는 자원봉사자들도 오챗코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오챗코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만든 과자나 수공예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에 의해 「아직도 우리를 기억해 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안심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들 스태프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벼운 기분으로 오챗코에 오실 수 있게 하는 인간관계와,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간의 연결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곤란할 때, 혹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부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스텝 다케이 히토미)

국내모금 달성액

(2013년 4월 16일 현재)

557,113,187 엔

Donations can be sent to our account at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 (SWIFT:SMBC JP JT) Takadanobaba Branch(273) 2471703, for US dollars 3291280, for other currencies